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강점 차이연구

박현철, 유 경*, 김락형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밝은언어심리센터*

A Study of Different Character Strengths in the Sasang Constitution

Hyuncheol Park, Gyung Yu*, Lakhjung Kim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Balgeun Speech and Language Center

Received: February 28, 2017

Revised: March 24, 2017

Accepted: March 28, 2017

Correspondence to

Lakhjung Kim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6 Eounro,
Wansan-gu, Jeonju, Korea.

Tel: +82-63-220-8617

Fax: +82-63-227-6234

E-mail: lakhjung@woosuk.ac.kr

Acknowledgement

This thesis was conducted as a
Master-Degree thesis of Korean
Medicine Major, Woosuk University
201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00237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sang Constitution character strength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One hundred fifty students of Woosuk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majors were Korean medicine, nursing science, and pharmacy. Their Sasang Constitutional types were determined using the results of a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The subjects were also tested by a Characteristic Strength Test (CST). The Character Strength test scores were compared to the different Sasang Constitutions using analysis of variances (ANOVA). Also, the five Signature Strengths presented to the subjects were measured as a percentage within Sasang Constitution Groups, and compared to the different Sasang Constitutions.

Results and Conclusions: 1. In CST score: Soyang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aeumin in creativity, curiosity, love, social intelligence, vitality, leadership,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and humor. Also, Soyang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oeumin in wisdom, kindness, bravery, and authenticity. 2. In CST score: Taeum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Soyangin in modesty. Taeumin and Soeum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Soyangin in prudence. 3. In the five signature strength analysis: Extrovert character strengths such as curiosity, vitality, social intelligence, bravery, and leadership, were higher in Soyangin. On the other hand, Introvert character strengths such as modesty, prudence, and self-regulation, were higher in Taeumin and Soeumin. 4. In the five signature strength analysis: The signature strengths of Soyangin and Soeumin indicated a biased distribution. The signature strengths of Taeumin indicated an even distribution.

Key Words: Character strength, Sasang constitution, TS-QSCD, CST, Korean medicine.

I. 서론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인간을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며, 각 체질은 다른 체질과 심리적, 생리적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경과가 다르므로 치료에서도 다른 약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학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체질 관련 의학들과는 달리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각 체질의 성정(性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정(性情)이란 일종의 심리적 특성인데, 성(性)은 천기(天機) 즉, 외부환경을 살피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적 성품, 즉 천성을 말하고, 정(情)은 인간이 사회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표출적 감정을 말한다¹⁾.

이러한 이유로 사상체질의 특성연구는 인간의 유형론에 대한 다양한 정신심리학 분야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인성특성, 정신병리에 대한 검사인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융의 심리유형론에 근간을 둔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유전학적 생물학적 근간을 중시하는 아이젠크 성격검사 EPQ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Cloninger의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등과 같은 성격심리학적 이론들과의 연구는 사상체질의 성격특성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²⁻⁶⁾.

인간의 유형론과 관련된 정신심리학 연구 중에 최근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심리학은 19세기 후반에 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탄생되었는데, 근대의 전쟁과 같은 역사적 격동기에서 정신심리학의 주요 과제는 정신장애, 심리적 결함, 부적응 행동, 이상심리와 같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 대두된 긍정심리학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지니는 장점과 미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기능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 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강점과 덕목에 대한 'VIA 분류체계 (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를 제시하였는데, 'VIA 분류체계'는 인간의 긍정적 성품을 크게 지혜, 인간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 24개 성격강점으로 분류하고 있다⁷⁾.

사상의학에서도 각 체질의 심리적 속성 중에 긍정적인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 의하면 태양인(太陽人)과 소양인(少陽人)은 적극적이고 개방적 성향을 보이며 태음인(太陰人)과 소음인(少陰人)은 신중하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四象人辨證論」에 의하면 태양인은 과감하며 소통에 능하고 소양인은 매사에 용감하며 강단이 있음을, 또한 태음인은 끈기로 성취하는 힘이 있고 소음인은 침착하며 신중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이제까지 사상체질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각 체질의 구체적인 성격강점에 대해 연구한 바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측면과 심리유형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긍정심리학에 기초한 성격강점을 통해 사상체질의 특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을 하고자, 'VIA 분류체계'에 근거한 성격강점검사(Characteristic Strength Test: CST)를 이용하여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OO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전공 분야, 학업성취의 차이 등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는 보건의약계열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진행은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IRB No. WSOH IRB 1203-02)을 거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 진단

사상체질 진단은 체질진단설문지인 TS-QSCD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우석대학교 사상의학교실) 결과로 판별하였다. TS-QSCD는 2단계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다시 陽人은 태양인 소양인, 陰人은 태음인 소음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검사하는 방식이다. 신⁹⁾의 표준화 연구에 따르면 TS-QSCD를 통한 전체 판별률은 65.0%이고 TS-QSCD의 내적 일치도에 따른 Cronbach의

알파값은 0.815와 0.832이었다¹⁰⁾.

2) 성격강점검사(CST)

성격강점검사(CST)는 권석만 등이 개발한 성격강점검사(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를 사용하였다. 성격강점검사는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24개의 성격강점을 측정하는 24개의 하위척도와 더불어 검사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검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선의도 척도를 포함하여 총 2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개 하위 척도는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피검자에 의해서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된다¹¹⁾. 또한 각 개인의 성격강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5가지의 성격강점을 제시한다.

3) 연구절차

교내 게시판의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참여를 신청한 대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설문지 작성의 주의사항을 듣고 사상체질 검사, 성격강점검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상체질진단은 우석대학교 사상의학교실의 2단계 사상체질진단 설문지 TS-QSCD 설문을 이용하였고, 성격강점검사는 권석만 등이 개발한 성격강점검사를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1) 점수 분석

먼저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성격강점 별 점수를 평균 비교하여 사상체질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one-way ANOVA를 선택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고 유의 있는 결과의 사후검정은 scheffe법을 사용하였다.

2) 개인별 성격강점 5개 항목에 대한 체질별 비율 분석

CST 검사 결과는 각 개인에게 24개 하위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5개의 성격강점을 대표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제시되는 5개의 대표 성격강점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그룹 내에서 각 성격강점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총 150명의 대상 중 태양인 5명(3.8%), 태음인 45명(34.6%), 소양인 43명(33%), 소음인 37명(28.4%) 이었으며, 체질감별에서 판별불가로 나온 20명과 대상인원이 너무 작아 분석이 무의미한 태양인군을 제외한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체질 간 나이 및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성격강점 별 체질의 차이

1) 6개의 핵심덕목에 대한 분석

지혜, 용기, 정의, 초월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소양인과 태음인, 태음인과 소음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간애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과 소음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절제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과 소음인, 소양인과 소음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 24개 성격강점에 대한 분석

창의성, 호기심, 사랑, 사회지능, 활력, 리더쉽, 심미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yangin	Taeemin	Soeumin	Total	p-value
N	43 (34.40)	45 (36.00)	37 (29.60)	125 (100.0)	
Age	24.9±3.6	24.8±4.3*	24.9±4.0	24.8±4.0	0.983 [†]
Gender (M/F)	16/27	26/19	16/21	58/67	0.137 [‡]

Values are number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ne way ANOVA, [‡]Pearson chi-square test.

Table 2. CST Results for each Sasang Constitution in the High Six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p-value
Wisdom	1.66±0.51 ^a	1.44±0.50 ^{a,b}	1.29±0.40 ^b	1.47±0.49	.003
Humanity	2.09±0.49 ^a	1.81±0.53 ^b	1.63±0.38 ^b	1.85±0.51	.000
Courage	1.77±0.48 ^a	1.59±0.45 ^{a,b}	1.37±0.37 ^b	1.59±0.46	.000
Temperance	1.40±0.43 ^a	1.71±0.47 ^b	1.58±0.42 ^{a,b}	1.57±0.46	.005
Justice	1.70±0.46 ^a	1.60±0.47 ^{a,b}	1.39±0.38 ^b	1.57±0.45	.008
Transcendence	1.83±0.49 ^a	1.62±0.53 ^{a,b}	1.52±0.44 ^b	1.66±0.50	.017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One way ANOVA (p<.05) and Scheffe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Table 3. CST Results for each Sasang Constitution in Charater Strenths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p-value
Creativity	1.71±0.72 ^a	1.30±0.75 ^b	1.01±0.56 ^b	1.35±0.74	.000
Curiosity	1.78±0.65 ^a	1.44±0.61 ^b	1.19±0.54 ^b	1.49±0.65	.000
Judgment	1.79±0.56	1.68±0.61	1.62±0.46	1.70±0.56	.357
Love of Learning	1.26±0.62	1.26±0.55	1.28±0.54	1.27±0.57	.978
Wisdom	1.77±0.57 ^a	1.54±0.62 ^{a,b}	1.38±0.48 ^b	1.57±0.58	.010
Love	2.22±0.50 ^a	1.94±0.58 ^b	1.86±0.43 ^b	2.01±0.53	.004
Kindness	2.08±0.54 ^a	1.92±0.51 ^{a,b}	1.68±0.41 ^b	1.90±0.52	.002
Social Intelligence	1.96±0.50 ^a	1.56±0.64 ^b	1.34±0.47 ^b	1.63±0.60	.000
Bravery	1.55±0.48 ^a	1.35±0.57 ^{a,b}	1.13±0.34 ^b	1.35±0.50	.001
Perseverance	1.67±0.63	1.72±0.60	1.45±0.52	1.62±0.60	.103
Honesty	1.93±0.53 ^a	1.68±0.53 ^{a,b}	1.58±0.47 ^b	1.74±0.53	.009
Zest	1.89±0.58 ^a	1.54±0.56 ^b	1.30±0.45 ^b	1.59±0.58	.000
Forgiveness	1.35±0.62	1.56±0.63	1.32±0.59	1.41±0.62	.147
Humility	1.33±0.52 ^a	1.81±0.62 ^b	1.65±0.58 ^{a,b}	1.60±0.60	.001
Prudence	1.41±0.50 ^a	1.77±0.55 ^b	1.70±0.41 ^b	1.62±0.52	.002
Self-Regulation	1.46±0.52	1.69±0.57	1.63±0.49	1.59±0.54	.119
Teamwork	1.73±0.47	1.79±0.55	1.58±0.50	1.71±0.51	.149
Fairness	1.63±0.51	1.68±0.46	1.57±0.46	1.63±0.48	.544
Leadership	1.77±0.55 ^a	1.31±0.65 ^b	1.05±0.42 ^b	1.39±0.62	.000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1.87±0.63 ^a	1.51±0.63 ^b	1.36±0.56 ^b	1.59±0.64	.001
Gratitude	2.18±0.63	1.95±0.70	1.93±0.59	2.02±0.65	.151
Hope	2.14±0.52	1.95±0.59	1.84±0.54	1.98±0.56	.048
Humor	2.06±0.57 ^a	1.62±0.68 ^b	1.47±0.49 ^b	1.73±0.64	.000
Spirituality	0.93±0.74	1.06±0.83	1.01±0.84	1.00±0.80	.771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determined One way ANOVA (p<.05) and Scheffe post hoc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유머감각은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과 소음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혜, 친절성, 용감성, 진실성은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과 소양인, 태음인과 소음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겸손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소양인과 소음인, 태음인과 소음인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중성에서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

과 소음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개방성과 학구열, 끈기, 관대성, 자기조절, 시민의식, 공정성, 감사, 낙관성, 영성은 체질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성격강점 5개 항목 체질별 비율 분석

1) 각 체질 별 분석

소양인은 ‘사랑’이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고, 감사(51.1%), 친절성(44.1%), 낙관성(37.2%)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호기심, 진실성, 심미안이 30.2%로 동률을 나타냈다. 태음인은 ‘친절성’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랑, 감사, 낙관성이 37.7%로 그 다음이었다. 소음인은 ‘감사’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랑이 62.1%, 겸손과 낙관성이 40.5%, 신중성이 37.8%, 개방성과 친절성이 32.4% 이었다(Table 4).

또한, 각 체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니, 평균은 모든 체질이 비슷하였지만, 표준편차는 소양인(17.18), 소음인(18.73)에 비해 태음인(11.90)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대표 성격강점들이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Table 5).

Table 4. The Ratio of Strength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N=43)	Taeumin (N=45)	Soeumin (N=37)
Creativity	30.2*	26.6	2.7
Curiosity	30.2*	13.3	5.4
Judgment	20.9	28.8	32.4*
Love of Learning	4.6	11.1	5.4
Wisdom	20.9	11.1	8.1
Love	65.1*	37.7*	62.1*
Kindness	44.1*	46.6*	32.4*
Social Intelligence	23.2	6.6	8.1
Bravery	6.9	4.4	0
Perseverance	16.2	26.6	18.9
Honesty	30.2*	22.2	29.7
Zest	23.2	4.4	0
Forgiveness	6.9	11.1	8.1
Humility	0	28.8	40.5*
Prudence	0	26.6	37.8*
Self-Regulation	2.3	26.6	21.6
Teamwork	6.9	24.4	13.5
Fairness	4.6	11.1	18.9
Leadership	11.6	6.6	0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30.2*	13.3	16.2
Gratitude	51.1*	37.7*	67.5*
Hope	37.2*	37.7*	40.5*
Humor	27.9	20	18.9
Spirituality	4.6	15.5	10.8

Values are percentage (%). *Value of over 30%.

2) 체질 간의 차이 분석

사랑, 친절성, 감사, 낙관성은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체질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호기심, 사회지능, 활력은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심미안은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용감성이나 리더십은 모든 체질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소음인이 0%로 소양인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은 태음인과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Table 5.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trength Ratio Values in each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N=43)	Taeumin (N=45)	Soeumin (N=37)
Average	20.79	20.78	20.81
Standard deviation	17.18	11.90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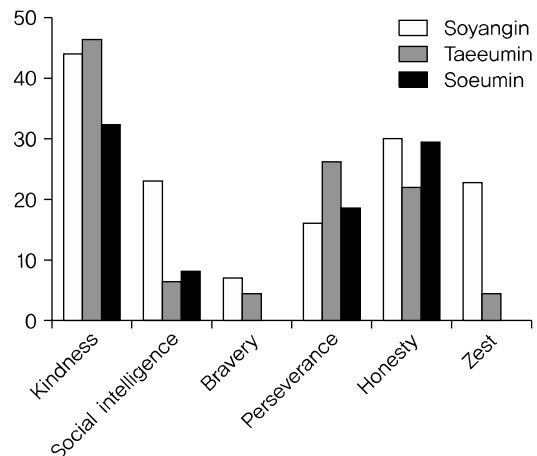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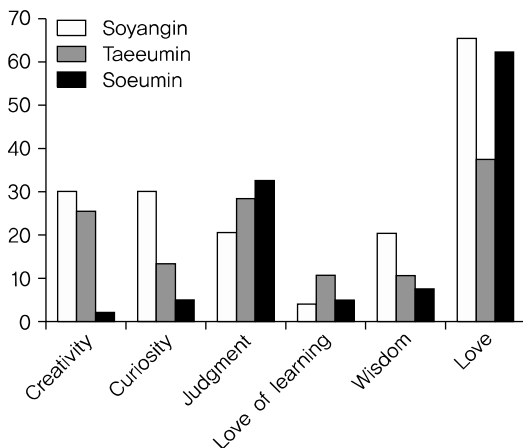


Fig. 1. The difference of each Sasang constitution in character streng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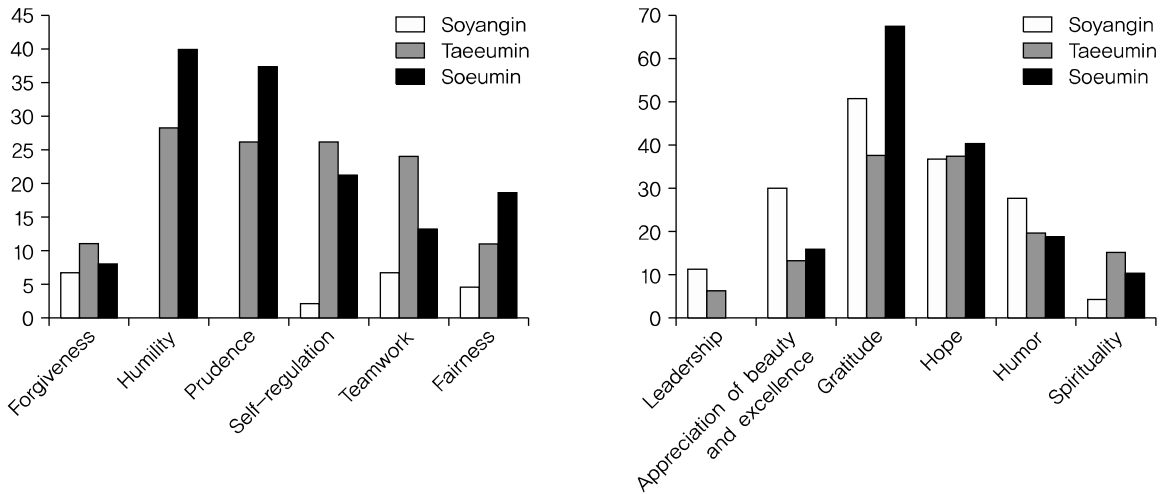


Fig. 2. The difference of each Sasang constitution in character strengths.

보였는데, 특히 겸손과 신중성에서는 소양인이 0%로 소음 인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창의성은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이 확연히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시민의식은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정성은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Fig. 1, 2).

IV. 고찰

사상의학에 따르면 체질 간에는 각각의 심리적 특성이 다르다고 한다. 이를 성정(性情)이라고 하는데, 성(性)은 천기(天機) 즉, 외부환경을 살펴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적 성품, 즉 천성을 말하고, 정(情)은 인간이 사회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표출적 감정을 말한다. 성정(性情)은 애노희락(哀怒喜樂)으로 집약된다. 주로 『동의수세보원』의 「사단론」과 「획충론」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엔 체질인의 주요성정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 이 장점들이 과하면 단점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거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들, 경계해야 할 마음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마음을 잘 조절해나간다면 건강하게 살아가갈 수 있다고 한다¹⁾.

이를 바탕으로 체질과 심리특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 등⁵⁾은 기질 및 성격 검사(TCD)를 통해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높은 자극추구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보이며, 낮은 위험회피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태

음인은 소음인 보다 높은 자극추구와 인내력을 보이지만, 위험회피에서는 소양인보다 낮고 소음인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 등²⁾은 MBTI를 통해,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인식형으로 상대적으로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고,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감각형이며 사고와 인식형에 가까웠고, 태음인은 외향적이고 감각형, 사고형이며 인식형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 등¹²⁾은 NEO-PI-R (성격특성검사)를 통해 태양인은 조중 성향, 외향성이 높고, 소양인은 태양인 다음으로 외향적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태음인은 죄책감 불안감이 높고 부정적 성격장애와 가학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음인은 우울증 강박증 내향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체질의 심리특성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병리, 이상심리, 성격유형론 영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사상체질의 심리특성 중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심리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정신심리학의 흐름 중에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지니는 장점과 미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기능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질 심리특성연구와는 달리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체질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긍정심리학은 1996년 임상심리학자인 Martin Seligman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그는 당시 질병모델에 근거한 예방 방법이 주류였던 심리학에 반하여 심리학이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ligman은 이러한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긍정심리학으로 명명하였고, Christopher Peterson과 Seligman을 포함한 여러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는데, 'VIA 분류체계'가 그것이다. 'VIA 분류체계'는 6개의 핵심덕목의 범주 아래 24개 강점과 덕성이 분류되고 있다. 6개의 핵심덕목은 지혜(wisdom), 자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인데 이 핵심덕목은 방대한 문헌을 조사한 결과 시대와 문화를 통틀어 놀라울 정도의 공통성을 보인 것들로서 상위 6개 덕목(the high six)이라고 불린다. 각 핵심덕목은 각각 3~5개의 하위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혜(wisdom)와 관련된 강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인 강점들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지혜와 이성을 다른 덕목의 구현을 지원하는 최상의 덕목으로 여겼다. 이러한 강점들은 삶에서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적인 성취를 돕는 강점들이다. 이 덕목은 5개의 강점, 즉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

자애(humanity)와 관련된 강점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강점들을 의미한다. 정의와 관련된 강점들은 다수의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강점인 반면에, 자애와 관련된 강점은 일대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사회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덕목은 3개의 강점, 즉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용기(courage)와 관련된 강점들은 내면적·외부적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강점들이다. 용기의 덕목은 4가지의 강점, 즉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제(temperance)와 관련된 강점들은 지나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긍정적 특질들로서 극단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는 중용적인 강점들이다. 이에는 4개의 강점, 즉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이 포함된다. 용서는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겸손은 교만으로부터, 신중성은 단

기적 쾌락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조절은 모든 극단적인 감정적 동요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정의(justice)와 관련된 강점들은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강점을 말한다. 이는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강점으로서 3개의 강점, 즉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월(transcendence)과 관련된 강점들은 현상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커다란 세계인 우주와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초월적 또는 영적 강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덕목은 5개의 강점, 즉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을 포함한다⁷⁾.

최근 국내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는데, 임¹³⁾은 대상 군에서 사랑, 친절성과 같은 자애관련 강점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낙관성 감사 활력 사랑이 삶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고, 문¹⁴⁾은 영성 사랑 용서 용감성 활력 지혜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¹⁵⁾은 사랑 호기심 사회성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¹⁶⁾.

본 연구에서는 00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보건 의약계열 전공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체질 감별에서 판별불가로 나온 20명과 대상원인이 너무 작아 분석이 무의미한 태양인군을 제외한 1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체질별로 CST의 결과지에 나타난 각 성격강점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이 분석은 상위 6개의 핵심덕목, 그리고 24개의 하위성격강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위 6개의 핵심덕목의 비교에서는 소양인이 지혜, 용기, 정의, 초월에서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간에서 소음인과 태음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절제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4개의 하위성격강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창의성, 호기심, 사랑, 사회지능, 활력, 리더십, 심미안, 유머감각은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혜, 친절성, 용감성, 진실성은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겸손에서는 태음인이 소양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중성에서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방성과 학구열, 끈기, 관대성, 자기조절, 시민의식, 공정성, 감사, 낙관성, 영성은 체질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소양인이 많은 성격강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겸손이나 신중성에서는 태음인과 소음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향적

인 성격으로 알려진 소양인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태음인 소음인 간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박¹²⁾의 연구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성향인 외향성의 척도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난 소양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점수 비교는 절대적인 비교로서 대상자들이 검사문항에 대한 답을 전반적으로 낮게 혹은 높게 기록했다면 체질 간 비교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CST에서 개인별로 제시되는 5개의 대표 성격강점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그룹 내에서 각 성격강점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각 체질집단 내에서 각 성격강점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양인은 ‘사랑’이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감사(51.1%), 친절성(44.1%), 낙관성(37.2%)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호기심, 진실성, 심미안이 30.2%로 동률을 나타냈다. 태음인은 ‘친절성’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랑, 감사, 낙관성이 37.7%로 그 다음이었다. 소음인은 ‘감사’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랑이 62.1%, 겸손과 낙관성이 40.5%, 신중성이 37.8%, 개방성과 친절성이 32.4% 이었다. 모든 체질에서 감사, 사랑, 친절성, 낙관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각의 성격강점별로 살펴보면, 호기심, 사회지능, 활력은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심미안은 소양인이 태음인 소음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융감성이나 리더십은 모든 체질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소음인이 0%로 소양인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은 태음인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겸손과 신중성에서는 소양인이 0%로 소음인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창의성은 태음인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이 확연히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시민의식은 태음인이 소양인 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정성은 소음인이 소양인 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호기심, 활력, 사회지능, 융감성, 리더십 같은 외향적인 성격강점은 소양인이 높았고,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같은 내향적인 성격강점은 태음인 소음인이 높았다. 특히, 융감성이나 활력, 리더십에서 소음인은 0%로 소음인과 큰 차이를 보였고, 겸손, 신중성에서는 소양인이 0%로 소음인과는 큰 차이를 보여 소음인과 소양인의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다. 반면에, 태음인은 소음인, 소양인과는 달리 강점들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강점의 비율값을 체질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각 체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니, 평균은 모든 체질이 비슷하였지만, 표준편차가 소양인(17.18), 소음인(18.73)에 비해 태음인(11.90)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양인과 소음인은 대표강점이 편향적으로 나타난다면,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대표성격강점들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과 MBTI관계성을 연구한 최¹⁷⁾의 연구 중 다른 체질과는 달리 태음인이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형과 감정형,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 대립되는 성격유형에서 대립되는 항목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다른 체질보다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식되어왔던 소양인의 심리특성과 좀 더 차분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식되어왔던 소음인 태음인의 심리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으며, 사랑, 친절성, 감사, 낙관성은 모든 체질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한 체질의 강점이라기보다 사회윤리학적 측면, 그리고 모집단이 보건 의약계열의 대학생이라는 성향이 이들 강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소음인과 소양인의 대표강점이 비교적 편향적으로 나타난다면, 태음인은 소음인, 소양인에 비해 대표성격강점들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상체질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측면과 심리유형론에 집중된 것과 달리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 사상체질의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격강점 각각의 점수비교 뿐만 아니라 강점으로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사상체질의 성격강점 경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성격강점의 특성이 사상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연구한다면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성격강점과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진전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강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상체질검사(TS-QSCD)와 성격강점검사(CST)를 통해 체질에 따른 성격강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격강점검사 CST 점수에서 소양인은 창의성, 호기심, 사랑, 사회지능, 활력, 리더십, 심미안, 유머감각 등이 태음인 및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혜, 친절성, 융감성, 진실성 등에서 소음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성격강점검사 CST 점수에서 태음인은 소양인보다 겸손이, 태음인과 소음인은 소양인보다 신중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대표 성격강점 5개 항목에 대한 각 체질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호기심, 활력, 사회지능, 융감성, 리더십 등 외향적인 성격강점은 소양인이 높은 반면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같은 내향적인 성격강점은 태음인과 소음인이 높았다.

4. 대표 성격강점 5개 항목에 대한 각 체질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양인과 소음인은 대표 강점이 편향적으로 나타난다면,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REFERENCES

1.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Jimundang, 1997:342-50, 66-76.
2. Park Hee-gwan, Lee Jong-hwa.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8;10(2):41-50.
3. Jin Hyung Kim, Hee Sook Yang, Yun Jae Guk, Im Sun Lo, Sung Geun Lee, Hyun Ho Jang, Tae Heon Kim, Yeoung Su Lyu, Hyung Won Kang. Study for correlation between MMPI results and Sasang constitutions, in out-patients of Oriental Neuropsychiatr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4;15(1):175-85.
4. Sung Jin-hyuk. The Comparative Questionnaire Study of the Spirit of Sasang Constitution with the MBTI Classification of Character.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1;13(2):156-64.
5. Choi Daesung, Kim Lakhjung, Seong Wonyung, Han Sujin, Shin Dongyun, Song Jeongmo.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Constitutional Type as assessed by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1;23(3):351-60.
6. Won-Young Sung, Ji-Young Kim, Lak-Hyung Kim. Temperament and Character Profiles of Sasang Constitu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3):55-64.
7. Kwon Sukman. Positive Psychology. Seoul:Hakjisa. 2008:17-34, 174-89.
8. Lim Sunbae.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earned secure attachment and character strenths. Hannam University. 2013.
9. Shin Dongyun, Song Jeomgmo.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S-QSCD.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9;21(1):99-126.
10. Woo Chang Choi, Woo Kyoung Kim, Jeong Mo Song, Lak Hyung Kim. The Differences of Learning Characteristics in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3;24(2):163-78.
11. Kwon Sukman, Yu Sungjin, Lim Yungjin, Kim Jiyung. Character Strengths Test. Seoul:Hakjisa. 2010:7.
12. Park Hyo-in, Lee Kun-in.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II & NEO-PI-R.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0;12(2):104-22.
13. Lim Myungjin.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a Strengths-Based Positive Psychotherapy on Happ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14. Mun Wonjung.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upon the Scholastic Achievements and Psychology Well-Being. Keimyung University. 2009.
15. Kim Mingyu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Strengths and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Keimyung University. 2011.
16. Lim Sunbae.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earned secure attachment and character strengths. Hannam University. 2013.
17. Choi Gwongwoo. Application of Comparisi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Jung in Communication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04.